

국토부, 도공 및 전관업체 “휴게시설 운영권 입찰” 비위 의혹, 수사 의뢰

- 도성회 자회사((주)H&DE)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에 대하여 도공 담당자 및 H&DE 대표 등 총 5명 수사 의뢰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(이하 ‘도공’)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하여,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&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였다고 밝혔다.
- H&DE가 ‘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(창원)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하여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.
 - 우선,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. 도공은 선산(창원)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. 5. 15.에 하였는데, H&DE는 그 두달 전인 ‘25년 3월경 선산(창원) 등 휴게시설 입찰정보 (연구용역 진행상황, 입찰공고 및 제안 일정 등) 및 사업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 - 다음으로, 도공 관계자나 입찰참여 업체 간에 가격정보 유출 및 담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선산(창원) 휴게시설의 낙찰 가격 (휴게시설 사용요율 : 향후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로 매출액 대비 최소 12.33% 이상)은 입찰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하여 결정되는데, H&DE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참여자들의 평균 입찰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- 이에 국토교통부는 선산(창원) 휴게시설 사업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던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&DE 대표 등 총 5명을 입찰방해 및 배임(수의특혜 의혹 포함) 건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 하였고, “감사자료 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	최신형 (044-201-3110)
	감사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이남일 (044-201-3125)